

# 생명조작과 인간의 미래 '삶의 지속' 이 전부인가

## 불자 세상보기

현대의 생명공학은 DNA를 조작해서 생명체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물론 인류는 수천년 전부터 농작물, 가축의 품종개량을 시도해 왔다. 넓은 의미로 이 역시 생명조작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체세포복제, 배아복제와 같은 인공적인 '복제기술'이 아니라, 자연적인 '개량 기술'이었다.

생명공학의 매력은 이부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불로장생의 기술을 통해 인간적 한계를 벗어나게 해 준다는 사실이다. 기술이런 본원적인 인간 해방의 기술은 모든 도덕적 인간규정, 모든 종교적 열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생명공학의 의화적인 이용으로 우리

는 이제 부처님이 설파했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번뇌도, 카르마도, 그래서 해탈도 없는 '무의미의 세계'로 인도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 기술은 '고통 없는 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휴먼-게놈-프로젝트가 인류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접어두고라도, 고령화사회의 많은 부작용은 단순한 우리의 수명을 넘는다.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원, 공기, 물이 고갈될 것이고, 과중한 의료비는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며, 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수혜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갈등은 현재의 계급갈등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 상상해 보자

노동하지 않고  
오직 숨쉬기만 하는  
150세의 젊은이(?)들  
 과연 행복할까

돼지의 체중에서 인슐린을 공급받고, 돼지 허파로 호흡하고, 인공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복제를 통해 얻은 무릎 관절로 걸어 다니는, 노동하지 않고 오직 숨쉬기만 하는 150세의 젊은이를 상상해보자. 무작정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생의 전과정에서 '고통없음'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진



구승희  
동국대 교수  
윤리학

정 '해방된' 삶일까? 자유와 평등, 관용과 타협이 더 이상 공적 도덕이 되지 못하는 획일화된 고령화사회에서 400만년 전 아프리카의 루시(Lucy)에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규정해 온 저 위대한 인간성의 이념은 온전히 지탱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규정에 근거해서 행복한 영생을 추구하는 생명공학 기술은 '근거 없는 희망'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모든 우월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기술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술의 역사에서 단 한번의 예외도 없다. 어떤 나라가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면 불치의 질병을 앓는 환자는 이를 허용하는 나라에 가서 신체기관, 장기, 내분비 물질을 공급받아 치료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각국은 핵무기경쟁과 똑같은 생명공학 기술 경쟁을 벌일 것이다.

사해동포주의적 호소가 지난 세기의 군비경쟁을 막을 수 없었듯이, 생명공학 기술의 현실적인 이점이 너무 크고 명백하기 때문에 생명조작에 대한 도덕적인 우려는 언제나 '부수적인 고려사항'일 뿐이다. 생명공학은 현실인데 반해, 도덕가의 경고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공허한 담담이다.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 있는 생명조작을 금지하기보다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삶의 지속'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가르치는 '종교적 생명관'을 전파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 이렇게 들었다

### 타락한 성윤리

#### 어찌 간악한 일을 행할까

남이 내 어여쁜 누이동생이나 아내를 욕보인다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이다. 온갖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보살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남의 여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이 나 더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마련이니, 항차 어찌 간악한 일을 행하겠는가?

(대방광보살은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음탕한 일에 미혹하면 정도를 잃게 되며 혼이 달아나서 일찍 죽게 되며, 죽은 후에도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나는 이를 두려워하여 사음(邪淫)의 숲을 떠났느니라."

(불사경)

남의 아내 범하기를 즐기는 자의 과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는 남의 마음을 사서 국법에 의해 구속되든지, 감옥에 갇히든가 하여 무수히 고통을 치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출요경)

모든 사람이 사악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태우고 남녀간의 계율을 흐리며, 그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고 불의와 패덕을 저지른다.

(무량수경)

애욕은 격렬한 욕망으로서 삶에 대한 집착의 근원이 되며,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모두를 탐내게 하며 때로는 죽음을 원할 정도의 극단적 욕망으로 변한다.

(남전장경 증지부)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되풀이함은 다 애욕으로 그 근본을 삼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은 끝없는 과거로부터 온갖 애욕의 바림이 불어오기 때문에 윤회가 있느니라.

(유각경)

음욕은 허물이 많아서 괴로움이 따르고, 언제나 만족을 모르므로 다른 나쁜 짓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음욕을 즐겨하지 않느니라.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애욕은 번뇌의 왕이어서 갖가지 번뇌들이 그 뒤를 따른다. 애욕은 꽃 뒤에 숨어서는 독사와 같아서 욕망의 꽃을 탐하는 사람들을 독 이빨로 물어 죽인다.

(대반열반경)

연상의 여인은 어머니로 알라. 중년층의 여인은 누이로 알라. 젊은 여인은 딸로 보라.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불제자들은, 젊은 몸이면서도 욕정에 물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있다.

(본생경)

사람이 재물과 여색을 버리지 않는 것은, 마치 칼날에 풀이 묻어 있어서 한번 먹을 것도 되지 않건만 어린애가 핏으면 허가 배어지는 재물이 따르는 것과 같다.

(사십이장경)

여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염되고 깨끗이 탐하고 더러워지고 미혹하고 집착하고 얽매고 속박되어서, 무엇이건 창녀의 말만 따르는 개한테 길 이 윤회하여 갖은 괴로움을 받게 된다.

(법수진경)

## 열·린·마·당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가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불교 재가 지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재가불자들이 중단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99%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중단정책 지원

## 재가자 중단운영 참여

기구에서의 참여를 비롯해 사찰운영 참여, 포교기관 참여, 종회의원으로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스님과 재가자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 출·재가 할일 구분 분명

명진스님(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옛부터 나라가 사찰을 지어 스님들에게 운영을 맡겼던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재가자들이 참여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물론 이 반식이 옳다. 그러나 스님과 재가자들이 한마음 한뜻만 된다면 누가 중단운영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될 수만 있다면 정책을 자문하고 사찰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스님과 재가자의 삶과 수행영역이 다르다는 점이다. 불교가 수행의 종교이고 보면 승단중심의 중단운영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또 하나는 재가자들이 말하는 대로 현재 상대가 과연 중단운영에 재가자가 참여할 준비가 돼있는가 하는 점이다. 재가자들의 중단운영 참여 주장은 말 그대로 생각과 주장일 뿐, 왜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대안도 없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재가자들의 중단운영 참여에 반대하는 스님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대다수 스님들은 승가와 재가의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스님과 재가자들의 할 일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정 분야의 중단정책과 사찰 운영, 포교분야에서 재가자들의 참여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사찰운영의 일 부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가자들의 중단운영 참여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된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서로 입장을 바꿔 충분히 생각하는 것이다.

### 교단 혁신의 필수 요소

김희욱(재가연대 협동집행위원장)

1963년 11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제5회 정기 중앙총회는 중단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회장 직무대행(김한천)과 조계종 전국 주요도시 신도대표자대회 의장(이종익) 명의의 건의를 손경산(제1대 중앙총회 차석 부의장), 박백안(제1대 중앙총회 의장), 김해원(종회의원)스님 등의 동의를 받아 안전으로 채택하여 중앙총회에 상정토록 결의한 것이다.

이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명실공히 사부중의 총리로 운영되는 중단으로 개편하기 위해 중원을 개정, 재가중이 중회의원 및 행정 감할기구에 참여할 것, 각 사찰에 신도대표를 두어 사원운영회에 참가하며, 중단 일체의 재산처분은 신도회의 합의하에 하되 그 처분에는 반드시 공교, 공개입찰로 할 것, 사찰주지 및 포교사는 각 신도회의 합의하에 중정이 임명할 것' 등이다. 이는 위의 대표자 대회에서 상정된 '대한불교조계종 혁신 재건안' 중의 일부로 생각된다. 이 결의가 어떠한 연유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는지를 살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가불자들의 중단운영 참여가 교단의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된다는 것은 역사적 현실적 당위이다.

조계종단은 94, 98, 99년 3년간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이것은 분쟁의 조정기능이 상실되고, '폭력' 이외의 다른 유효한 수단이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와 현실적 상황에서 재가불자들의 중단운영 참여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이제 그 합리적 방법론을 가지고 토론할 때다.

## 기고

“오페라 '직지' 공연  
주제음악 없고  
복식 고증 부족하듯



범현스님  
종단협 사무국장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백운화상의 (직지심체요절)을 찾자 하는 간절한 희망을 담은 오페라 '직지'를 관람하고 매우 즐거웠다.

그러나 세심히 들여다 보면 몇 가지 티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티는 벗고 '직지'에 빠져드는 감성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정신을 집중해 보는 것과 벗고 보고 보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오페라 '직지'에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오페라 '직지'에는 특출한 주연, 확 드러나는 주제음악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희' 등 뛰어난 오페라에는 반드시 그 음악이 최고의 것이 되게 한 주제가, 즉 '아리아'가 있다. 그것은 일인(一人) 오페라적인 우리의 판소리 심청가, 춘향가 등에도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직지' 같은 오페라 '직지'의 티다. 가사의 시작 감성 및 멜로디의 예술성을 보다 더 대중화해서 누구나 흥얼거리며 따라 부를 수 있는 대표곡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일.

또 하나는 출연자의 복식에 관한 것이다. '직지'의 인쇄 과정을 묘사한 청주 고인쇄 박물관의 밀랍 인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스님들의 가사는 장엄 염불에도 나오는 붉은 색의 홍가사이다. 그러나 출연자가 여러 형태의 가사를 착용해 무척 혼란스러웠다. 바라춤, 내비춤(작복)을 추는 스님들은 현대식 홍가사를, 장엄 염불을 하는 스님은 반색 가사를 착용했으며 편단우견, 즉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가린 형태가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드러낸 형태의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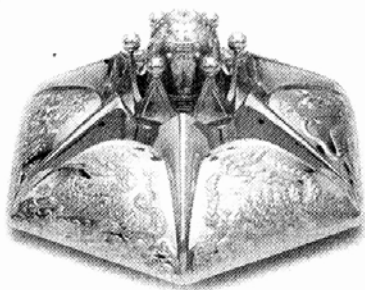
오페라의 극적 요소 때문에, 또는 출연자들의 활동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으나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고증이 감동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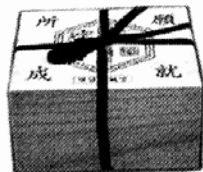
#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기(氣)란 : 현실이다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룡(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 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 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 육기(氣) 방 사용 제임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씀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
- 자동차 사고로 치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고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스님의 글을 넣어도 좋습니다.
- 주지스님을 친견후에 제품을 구입하십시오.
- 철학관 선생님과 면담 후 제품을 구입하십시오.

명 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치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 사용지

가정집, 공장, 공부방, 새집터, 가게, 사업장, 자동차, 선박, 묘지, 장의사(관), 종합(제),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실용신안 · 의장등록 · 상표등록 (특허출원)

### 구입지 전국불교용품점, 사찰 · 암자, 철학관

(주)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공장: 051) 864-7878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 생각처도 많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나 기적(奇蹟)이나 하는 소리가 많다.◆